

'사람 중심 생태교통도시 구현'

전주시, 대중교통 혁신·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교통 분야 4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가 올해 시내버스 지·간선제의 본격 시행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통체계 확립에 매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 이보호구역의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과 생태교통수단 활성화 기반을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

이와 함께 시내버스 통행 속도와 수송능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전주한옥마을 일대에 국내 최초로 소형 무가선 광량트램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사업방식 결정 등 제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친환경 수소버스 17대 보급,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시내버스 정기권의 경우 편의점까지 판매처를 확대해 1일권과 2일권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주력한다. 초등학교 75개소 중 인도가 미설치된 23곳의 통학로를 확보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21대와 과속단속카메라 111대를 확대 설치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심권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사업도 오는 3월까지 마무리지를 방침이다.

더불어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바꿔 정체를 줄이고 긴급차량에 우선 신호를 부여해주는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SMS)을 구축하고, 만성지구 등 교통 혼잡지역 내에는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또 철도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한다.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등 11개 노선, 21.2km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정비한다. 이와 관련, 턱 낮추기, 평탄성 확보, 불라드 정비 등의 사업과 전주천과 삼천천 자전거도로 분리사업을 진행한다. 공영자전거 '꽃사이'의 경우 무인시스템을 도입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키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021 자전거의 날'을 개최하는 등 자전거 문화 확산도 꾀하기로 했다.

시는 또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등 자동차 의무사항을 관리해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양질의 차량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올해에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 구현, 사람 우선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감동을 주는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등 추진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해 시민이 존중받는 생태교통도시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체육발전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

시·시 체육회, 14명 회원종목단체장에 전달

전주시와 전주시체육회(회장 박종운)는 2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종운 체육회장, 14명의 체육발전 유공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체육발전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은 재임기간 체육 발전을 위한 열정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헌신적인 활동을 보여준 회원종목단체장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수여식에서는 ▲김근배 전주시탁구협회장 ▲김대식 전주시스키협회장 ▲김문호 전주시농구협회장 ▲김성기 전주시배드민턴협회장 ▲박승교 전주시골프협회장 ▲성명기 전주시축구협회장 ▲신재홍 전주시태권도협회장 ▲엄운상 전주시탁구협회장 ▲이병주 전주시당구연맹회

장 ▲이영국 전주시축구협회장 ▲이영섭 전주시유도회장 ▲이춘성 전주시불량협회장 ▲장완성 전주시합기도협회장 ▲최낙준 전주시태니스협회장 등 14명의 단체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총 59개 회원단체, 1330개 클럽, 5만여 명의 생활체육인들로 구성된 전주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종목별 리그 운영, 동호인 클럽 활성화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종운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체육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회원종목단체별 학교 체육팀과 결연해 스포츠용품 후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생활체육이 움츠러든 한해였지만 올해에는 전주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간 단단한 결집을 통해 체육발전을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활동을 보여주신 유공자분들과 모든 체육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도 전주시 체육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전주시체육회는 2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종운 체육회장, 14명의 체육발전 유공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체육발전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

화훼농가 돕기 위한 '꽃 사주기 운동' 전개

전주농기센터, 시청·양구청·유관기관 대상 700여만원 꽃 주문 판매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이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지난 1일과 2일 시청과 양구청, 유관기관 대상으로 700여만원의 꽃을 주문 판매했다.

이번 주문 판매는 1~2월 최대 성수기가 사라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와 꽃 판매업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주)로즈피아와 지역 내 16개 화훼농가로 구성된 연합회가 참여해 장미와 국화, 프리지아 등을 판매했다. 시는 지역의 유관기관에 서한문을 보내 화훼농가 꽃 사주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상태로, 화훼농가와 연계해 다음 달까지 주문 판매를 지속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시청과 양 구청, 한옥마을, 전주역 등에서 꽃 다발을 판매하는 이동장터 운영 및 공공기관에 주문판매로 1만 송이를 판매하는 등 화훼농가에 큰 도움을 줬다.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이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꽃이 될 수 있도록 1테이블 1플라워 운동 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맞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와 원광모자원(원장 조영례)은 2일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부모 가족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원만한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원광모자원은 이날 협약으로 전주시청소년안전망 1388청소년지원단에 신규 가입했다.

원광모자원은 전주기초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받아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혜선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관심을 더 이끌어내 더욱더 충직한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 기숙사 방역 관리 철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교 기숙사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숙사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단거주시설 내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학교 기숙사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학교는 방학 중 30명 이상 운영하는 도내 32개 중·고등학교로, 도교육청 행정과와 인성건강과 합동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숙사 내 침실 사용 인원 최소화 여부 ▲이용 학생 대상 매일 2회 이상 발열 검사 실시 여부 ▲학부모·방문자·음식 배달원 등 외부인 출입 제한 여부 ▲주기적인

환기 실시 및 소독, 청소상태 확인 ▲코로나19 감염 예방 행동 수칙 홍보물 부착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밀집도 완화를 위해 1인실 사용 권장,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실당 6명을 초과하는 다인실 운영 금지 등 방학 중 학교기숙사 관리 강화 방안을 안내한 바 있다.

또한 기숙사 임사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3인 1실 이상이거나 화장실·세면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숙사 운영 관리에 있어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로 코로나19 감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힘이 될 수 있도록 1테이블 1플라워 운동 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